

## 학교도서관은 또 다른 교실이다!



송 기 호\*

학교도서관을 처음 만나는 사서교사는 처음에 품었던 꿈과 현실과의 차이를 교실 반칸, 한칸, 2칸, 3칸을 가꾸며 넓혀갑니다. 여전히 이상한 냉대와 주체할 수 없는 부러움의 대상인 사서교사라는 꼬리표가 이제는 당연한 존재의 이유이며, 아이들이 서가 앞에서 보여주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늘어나는 공간과 책의 무게만큼 삶의 즐거움이 되는 날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일만이천여개의 학교에 교직원 260여명의 사서교사’

이 땅의 학교도서관이 서 있는 지표토씨 이 보다 더 처절하고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어느 지역교육청의 단일 교과교사 수보다도 적은 한 줌의 사서교사는 교육 당국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물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교육·문화정책에서 학교도서관이 갖는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슬픈 자화상 같은 숫자 이상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숫적 상징성과 인식의 한계를 차분히 짚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지난 몇 년간은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에게 있어서 질풍노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격변의 학교도서관 역사는 지식기반사회와 평생학습 사회 등장으로 불기 시작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정보화의 바람 앞에서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의 외형이 디지털도서관, 미디어센터, 교수·학습자료센터로 변화되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신장이라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료활용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애써 강조되는 교육환경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당연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입니다. 이 정책은 시민단체의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의 열기를 반영하여 2년에 걸친 실태조사와 연구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교육개혁의 지속적인 수행과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에 학교도서관의 잠재적인 역할을 접목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정책은 이를 위해 열악한 학교도서관의 시설·설비·자료·인적 자원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지방비를 합쳐 연간 600억원씩 총 3,000억원을 학교도서관에 투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준비와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학교 현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학교도서관이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학습 자료와 즐거운 문화 공간을 갖도록 하는 뜻깊은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수행평가 과제해결을 위해서, 읽고 싶었던 책을 보기 위해서, 부모를 조르거나 서점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명실공히 학교도서관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환경이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종합 교수·학습시설로써 거듭나는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정책의 시행은 사서교사들에게 즐거운 고단함과 함께 어두운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고 자의식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투자하기로 한 300억원의 특별교부금 중 100억원이 삭감되고 이에

\*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위원회 위원장, 한국학교도서관협회의회 사무국장, gihoo7@dreamwiz.com

따라 시·도교육청의 대응투자액 100억원을 합쳐 총 600억원의 사업비 중 200억원이 삭감됨으로써 시행 1년만에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표한 5년의 약속을 아무런 변명이나 대안 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훼손한 처사는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 조치가 조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이라는 교육과정 운영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환경으로서 학교도서관을 설명하던 교육 당국의 인식과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향후 4년간의 활성화 정책에서 사업비가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삭감된 100억원의 특별교부금은 이미 지원대상 학교가 선정된 점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든지,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장이나 학부모 등이 갖게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의지와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열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든 양치기 소년과 같은 어리석음은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향후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 후에도 학교도서관이 자생적인 성장 동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간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디지털자료실 설치 사업의 점검과 개선 방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수준의 학교도서관 질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 실정에 맞는 운영 요소를 양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위 학교도서관을 장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장학 체계의 재정립 및 사서교사 출신의 장학전문인력 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고, 더군다나 공공도서관 사서에게 떠넘기는 것은 학교도서관의 특수성과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간과한 것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전담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적자원은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며,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인 문화와 기술을 창출하고 관리하는 근본적인 주체입니다. 이미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바와 같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에 있는 지역교육청별로, 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은 초·중·고별 각 1명씩 3명을, 광역시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에는 초·중·고별로 각 2명씩 6명의 사서교사를 연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학교도서관을 도서관의 기본이라고들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생활에서 학생들이 갖게되는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배경지식은 대학도서관은 물론 공공도서관에 투영되는 것은 물론 이 땅의 문화 환경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경지식이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서 자습실로 세습되고, 사서직을 책이나 매만지는 한직이라고 뇌리에 박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의 후퇴를 도서관인 모두가 자신의 일로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 없이는 존재 의의를 갖기 어렵습니다. 학교도서관의 외형적 변화에 맞추어 우리 도서관인은 학교도서관과 교육과정 연계 방안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260여명 사서교사만의 몫이 아니며, 정책의 후퇴는 그들만의 문제이며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번 학교도서관 정책의 후퇴는 그나마 이 땅의 도서관과 사서들에게 없어진 100억원이나 200억원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믿는 이 땅의 모든 사서교사와 학교도서관에서 가르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은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특별교부금 100억원 삭감이 불가피한 일시적인 후퇴였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들의 믿음과 학교도서관 활성화 열의에 부응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있는 후속 조치와 정책 실현 의지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학교도서관은 또 다른 교실이다’ ‘꿈을 이루는 학교도서관’, 이 가슴에 녹아드는 우렁찬 외침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발적인 목소리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